

# 與野, 원포인트 본회의 불투명 ‘국민 개헌 발안제’ 사라질 위기

통합당 ‘여야합의’ 입장 바뀌  
문희상 ‘표결 공감대’ 형성  
“최소한 표결 절차는 거쳐야”



20대 국회 임기 종료로 24일 앞둔 5일 여야는 국민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개헌 발안제(원포인트 개헌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100만 명의 동의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 개헌 발안제’가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여야는 앞서 국민 개헌 발안제를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에서 입장을 바꾼 뒤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아 표결조차 못한 채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뒤틀리는 것 같다. 합의가 잘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통합당은 국민 개헌 발안제 표결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에 잠정 합의했다. 통합당은 잠정 합의에서 원포인트 본회의에 불참해 국민 개헌 발안제를 ‘투표 불성립’ 상태로 만들어 법적 절차에 따라 종료하기로 했다.

헌법에 따르면 개헌안은 공고 후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규정돼 있고, 개헌안 처리를 위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통합당은 국민 개헌 발안제에 반대하는 만큼 본회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않고 절차상 ‘개헌안을 처리했다’는 식으로

정리하기로 했고, 이는 당초 여야가 잠정적으로 합의한 내용이었다.

입장이 돌연 바뀐 것은 통합당 의원들의 반발이었다. 국민 개헌 발안제 표결 처리에 대한 반발이 큰 만큼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 역시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이에 심재철 통합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 조차 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로 이뤄지는 만큼 통합당 반발로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가 무산된 셈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기자회견에서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는) 국회에 발의돼 있는 국민 개헌 발안제가 결하려는 의도를 가진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한다. (헌법에 개헌안

처리를 규정)한 시한이 5월 9일이고, (9일은) 토요일이기에 8일까지 절차적 종료 과정에 우리가 응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밝힌 바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국민 개헌 발안제 본회의 표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헌법 절차에 따라 국민 개헌 발안제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표결 절차는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통합당이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에 부정적인 상황에 국민 개헌 발안제를 직권상정해 표결하는 방안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역시 통합당 의원이 불참하기로 한 만큼 투표가 성립하지 않아 국민 개헌 발안제는 절차적 종료로 마무리된다.

정준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4일 이인영 원내대표와 문 의장 면담 직후 기자들을 만나 “(문 의장은 본회의 의결 정족수와 관계없이) 8일에 (본회의를) 한다고 했다. 의장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며 “헌법적 절차를 마쳐야 하고, 마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통합당 내부에서 ‘개헌안의 절차상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에 합의할 경우 자칫 개헌안에 찬성하는 의견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돼 앞으로 여야 원내 지도부가 다시 만나 논의하는 것조차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어린이날인 5일 가상공간 속에 마련된 청와대를 어린이들에게 소개하는 특별 영상에 등장해 인사하고 있다. 와대가 제작해 유튜브에 공개한 이 영상은 온라인 교육을 받던 어린이가 가상공간에 구현된 청와대 내부로 ‘순간이동’을 해 대통령 부부를 만나 청와대를 여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와대

## “코로나19 잘 참아줘 감사” 文, 어린이들 靑 랜선 초청

98주년 어린이날 행사

“온라인 공간서 마스크 벗고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하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5일 랜선으로 어린이들과 만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예년처럼 어린이날 맞이 청와대 초청행사 진행이 어렵게 되자 샌드박스 게임인 마인크래프트 내 온라인 공간을 구현해 어린이와 만난 것이다.

문 대통령 내외는 제98주년 어린이날 이날 마인크래프트 청와대 맵에서 어린이와 만나 본관과 집무실 등을 소개했다. 마인크래프트는 다양한 블록으로 가상의 세계를 건설하고 탐험하는 샌드박스 게임으로 게임계 레고로 불린다. 문 대통령 내외는 맵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도 씩씩하고 밝게 이겨내고 있어 자랑스러운 어린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사태로 친구와 만나기 어렵고 ‘온라인 개학’이라는 낯선 환경에 처한 어린이들 마음을

위로하며 “여러분들이 잘 참아준 덕분에 우리는 코로나를 이겨내고 있다”고 격려했다. 이어 “어른들도 여러분처럼 처음 겪어보는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 함께 조금만 더 힘을 내자”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어린이날 맞이 랜선 초청 행사를 준비한 데 대해 “어린이날 야외 행사는 못 하지만 온라인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더 많은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랜선 초청에 사용한 마인크래프트 맵에는 청와대 본관 내부와 집무실, 질병관리본부 브리핑 현장, 지하철 방역 모습 등을 구현했다. 문 대통령 내외 캐릭터도 등장해 어린이들의 청와대 내부 관람을 돕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 내외는 캐릭터 목소리 녹음과 영상 촬영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어린이날을 맞아 제작한 ‘청와대 마인크래프트 맵’을 오픈소스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마인크래프트 이용자 누구나 청와대 가상공간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최영훈 기자

## 농식품부, 올 농식품 벤처창업 기업 350곳 선정·지원

맞춤지원으로 창업 성공률 높이기로

정부가 올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농식품 벤처창업 기업이나 예비창업자 350곳을 선정해 맞춤형 창업지원에 나선다. 농식품 분야 벤처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술기반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지원 대상 350곳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사업에 지원한 643개 기업을 평가해 최종 188개소(예비창업자 50명, 기 창업기업 138개)를 신규 선정했고, 계속 지원기업 162개소를 합해 전년보다 100개소 많은 총 350개 기업을 지원한다.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중·고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당정협의를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매년 평가를 통해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사업 예산은 66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두 배 이상 증액했다.

/한용수 기자 hys@

지원 대상 기업은 농식품이나 농산업 기술융복합 분야로 1년 이내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같은 분야 영위 사업자로 창업한 지 7년 이내 창업 기업이다.

신규 선정된 138곳은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식품가공 업종이 47%(전년 대비 7%p↓)로 가장 많다. 첨단농업(16%), 농기자재(12%) 등 기술기반 업종의 비중은 전년 대비 12% 포인트 증가했고, 건강식품 분야는 7%이다.

선정된 사업대상자에게는 지난해 대비 대폭 확대된 사업화와 창업을 위한 자금이 지원된다. 창업기업의 경우 지난해 사업화자금을 기업당 평균 1400만원(자부담 600만원 별도)으로 동일했으나, 올해부터는 평균 2100만원(자부담 900만원 별도)까지 확대됐다.

올해는 지자체가 추천한 19개 양조장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불휘농장(영동), 수도산와이너리(김천), 지리산운봉주조(남원), 화양(청주) 등 4개소가 신규 선정됐다.

불휘농장은와이너리가 밀집한 충북 영동군에 위치하고 있고, 가족이 모두 소믈리에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성 있는 와이너리로 평가됐다. 국내 농가형 와이너리 중 최초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획득했다.

/한용수 기자

## 우수 양조장 고도화... 지역경제 활성화 올인

농식품부, 찾아가는 양조장 4곳 선정

정부가 지역의 우수 양조장을 생산에서 관광·체험까지 연계된 복합공간으로 고도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도 ‘찾아가는 양조장’ 4개소를 신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은 지역 양조

장에 대해 환경개선과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종합 지원해 체험·관광이 결합된 지역 명소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첫해인 2013년 2개소에서 올해 42개소로 확대됐다. 양조장 선정 심사에서는 지자체 심사를 거쳐 추천된 곳을 대상으로 술 품질인증, 양조장의 역사성,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관광요소, 품평회 수상이력 등을 종합 평가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노수현 원장(앞쪽 흰색 마스크)과 화훼협회, 명예감시원 등이 서울 양재동 화훼꽃시장에서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를 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관원, 화훼류 공정거래 유도 나서

명예감시원 789명 투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화훼산업 침체 등 생산농가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가 화훼류 공정거래 유도와 원산지 부정유통 사전방지에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화훼류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생산자·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등 총 789명을 투입해 6일~15일까지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와 단속을 실시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화훼 생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외국산 화훼류가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원산지 표시 없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산지 표시 홍보 캠페인도 함께 실시한다.

단속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많이 팔리는 카네이션, 국화, 장미 등 절화류 판매업체에 특별사법경찰 285명을 투입해 집중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화환 제조·판매업소, 꽃 도·소매상(회원), 화훼공판장, 편의점 등이다. /한용수 기자